

HSPACE Rust 특강

Rust Basic #4 - 오류 처리

Chris Ohk

utilForever@gmail.com

오류 처리

HSPACE Rust 특강
Rust Basic #4 - 오류 처리

- 패닉
- Result

- 프로그램 자체에 있는 버그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프로그램은 패닉에 빠진다.
 - 배열의 범위 밖에 있는 요소에 접근하는 행위
 - 정수를 0으로 나누는 행위
 - Err이 되어버린 Result에 대고 .expect()를 호출하는 행위
 - 단언문 실패
- 프로그래머는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패닉이 발생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
 - Rust는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다. 우리는 스택을 해제하거나 프로세스를 중단할 수 있다.
 - 기본 동작은 스택을 해제하는 것이다.

- 해제
 - 정수를 0으로 나누는 일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 C++에서는 정의되지 않은 동작(Undefined Behavior)을 한다.
 - Rust에서는 패닉에 빠지게 되며, 보통 다음의 절차가 진행된다.
 - 터미널에 오류 메시지가 출력된다.
 - 스택이 해제된다. 현재 함수가 쓰던 임시 값, 지역 변수, 인수는 모두 생성된 순서와 반대로 드롭된다. 프로그램이 쓰던 String이나 Vec은 모두 해제되고 열린 File은 모두 닫힌다. 현재 함수 호출이 정리되고 나면 이번에는 그의 호출부로 이동해서 같은 방법으로 변수와 인수를 드롭한다. 그리고 스택 끝에 닿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함수의 호출부로 이동해 정리한다.
 - 끝으로 스레드가 종료된다. 만약 패닉에 빠진 스레드가 메인 스레드였다면 전체 프로세스가 종료된다.

- 해제

- 패닉은 크래시(Crash)도 아니고 정의되지 않은 동작도 아니다.
오히려 자바의 RuntimeException이나 C++의 `std::logic_error`에 가깝다.
동작은 잘 정의되어 있다. 단지 발생하면 안 될 뿐이다.
- 패닉은 안전하며 Rust의 어떤 안전 규칙도 위반하지 않는다.
Rust는 잘못된 배열 접근이든 뭐든 안 좋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잡아낸다.
패닉에 빠지면 계속 진행하는 것이 위험하므로 Rust는 스택을 해제한다.
- 패닉은 스레드별로 발생한다.
한 스레드가 패닉에 빠져도 다른 스레드는 정상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다.

- 중단
 - 스택 해제는 패닉의 기본 동작이지만, 다음 상황에서는 Rust가 스택 해제를 시도하지 않는다.
 - Rust가 첫 번째 패닉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drop()` 메소드가 두 번째 패닉을 유발하면 이는 치명적인 상황으로 간주한다. Rust는 해제를 멈추고 전체 프로세스를 중단한다.
 - Rust의 패닉 동작은 변경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을 `-C panic=abort` 옵션으로 컴파일하면 첫 번째 패닉이 발생하는 즉시 프로세스가 중단된다.

- Rust에는 예외가 없다. 대신 실패할 수 있는 함수가 다음과 같은 리턴 타입을 갖는다.



```
fn get_weather(location: String) -> Result<WeatherReport, io::Error>
```

- Result 타입은 실패 가능성을 암시한다.
get_weather() 함수는 성공 결과 Ok(weather)나 실패 결과 Err(error_value) 둘 중 하나를 반환하는데, weather는 새 WeatherReport 값이고 error_value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설명하는 io::Error 값이다.
- Rust는 위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모종의 오류 처리 코드 작성을 요구한다.
Result에 뭔가를 하지 않고서는 WeatherReport를 얻을 수 없으며,
Result 값을 사용하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경고를 내보낼 것이다.

- 오류 잡기
 - Result를 다루는 가장 철저한 방법은 match 표현식을 쓰는 것이다.
이 방법은 다른 언어의 try/catch에 해당한다. 오류를 호출부에 넘기지 않고 직접 처리하고자 할 때 이 방법을 쓴다.

```
match get_weather(hometown) {  
    Ok(report) => {  
        display_weather(hometown, &report);  
    }  
    Err(err) => {  
        println!("error querying the weather: {err}");  
        schedule_weather_retry();  
    }  
}
```


- 오류 잡기
 - 하지만 `match`는 코드를 구구절절 늘어놓게 되는 경향이 있다.
`Result<T, E>`는 자주 겪는 몇 가지 상황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메소드들을 모아 제공한다.
 - `result.is_ok()`, `result.is_err()`
 - `result.ok()`
 - `result.err()`
 - `result.unwrap_or(fallback)`
 - `result.unwrap_or_else(fallback_fn)`
 - `result.unwrap()`
 - `result.expect(message)`
 - `result.as_ref()`
 - `result.as_mut()`

- Result 타입 별칭

- Rust 문서를 보다 보면 가끔 오류 타입이 생략된 Result를 만날 때가 있다. Result 타입 별칭을 쓰고 있다는 뜻이다.

```
fn remove_file(path: &Path) -> Result<()>
```

- 타입 별칭은 타입 이름을 위한 일종의 축약 표기다. 모듈은 보통 Result 타입 별칭을 정의해서 그 모듈에 있는 함수들 대부분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오류 타입을 반복해 적지 않아도 되게끔 만든다.

```
pub type Result<T> = result::Result<T, Error>;
```

- 앞의 코드는 `std::io::Result<T>`라는 공개 타입을 정의한다.
이 타입은 `Result<T, E>`의 별칭으로, 오류 타입이 `std::io::Error`로 고정되어 있다.
이 말은 `use std::io;`라고 써 두면 Rust가 `io::Result<String>`을 `Result<String, io::Error>`의 축약 표기로 이해한다는 뜻이다.

- 오류 출력하기
 - 경우에 따라서는 오류를 터미널에 덤프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다.
이를 위해 오류 타입들의 공통 인터페이스인 `std::error::Error`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몇 가지 메소드를 제공한다.
 - `println!()`
 - `err.to_string()`
 - `err.source()`

- 오류 출력하기
 - 오롯값을 출력하더라도 그 원인은 표시되지 않는다.
오류에 관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출력하고 싶다면 다음 함수를 사용하자.

```
use std::error::Error;
use std::io::{stderr, Write};

// Dump an error message to `stderr`.
//
// If another error happens while building the error message or writing to `stderr`, it is ignored.
fn print_error(mut err: &dyn Error) {
    let _ = writeln!(stderr(), "error: {err}");

    while let Some(source) = err.source() {
        let _ = writeln!(stderr(), "caused by: {source}");
        err = source;
    }
}
```

- 오류 전파하기

- 오류가 발생하면 보통은 호출부에 처리를 맡기고 싶어 한다. 즉, 호출 스택을 타고 **전파(Propagation)**되길 원한다. 이를 위해 Rust에는 ? 연산자가 있다. ?는 함수 호출 결과와 같이 Result를 산출하는 모든 표현식에 붙여 쓸 수 있다.



```
let weather = get_weather(hometown)?;
```

- 위 코드에서 ?의 동작은 함수가 성공 결과를 반환하는지, 오류 결과를 반환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 성공한 경우에는 Result를 풀어서 그 안에 있는 성공 값을 꺼낸다. 여기서 weather의 타입은 Result<WeatherReport, io::Error>가 아니라 그냥 WeatherReport다.
 -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바깥쪽 함수에서 복귀하고 오류 결과를 호출 체인 위로 전달한다. 이 때문에 ?는 리턴 타입이 Result인 함수에서만 쓸 수 있다.

- 오류 전파하기

- ? 연산자가 어떤 마법을 부리는 게 아니다. 좀 번거롭고 길지만 match 표현식으로도 이와 똑같은 처리를 할 수 있다.

```
let weather = match get_weather(hometown) {  
    Ok(success_value) => success_value,  
    Err(err) => return Err(err),  
};
```

- 프로그램에서 특히 운영체제와 맞닿아 있는 코드는 오류의 가능성이 곳곳에 배어 있다는 걸 잊지 말자.
경우에 따라서는 함수의 거의 모든 줄에 ? 연산자가 붙기도 한다.

```
fn move_all(src: &Path, dst: &Path) -> io::Result<()> {  
    for entry_result in src.read_dir()? {  
        let entry = entry_result?;  
        let dst_file = dst.join(entry.file_name());  
  
        fs::rename(entry.path(), dst_file)?;  
    }  
  
    Ok(())  
}
```

- 여러 오류 타입 다루기
 - 가끔은 다뤄야 할 오류의 종류가 여러 개일 때도 있다. 예를 들어, 텍스트 파일에서 숫자들을 읽는다고 하자.

```
use std::io::{self, BufRead};

/// Read integers from a text file.
/// The file should have one number on each line.
fn read_numbers(file: &mut dyn BufRead) -> Result<Vec<i64>, io::Error> {
    let mut numbers = vec![];

    for line_result in file.lines() {
        let line = line_result?; // Reading lines can fail
        numbers.push(line.parse()?); // Parsing integers can fail
    }

    Ok(numbers)
}
```

- 여러 오류 타입 다루기
 - Rust는 앞의 코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컴파일러 오류를 낸다.

```
error: `?` couldn't convert the error to `std::io::Error`
```

```
numbers.push(line.parse()?); // Parsing integers can fail
                        ^
```

```
the trait `std::convert::From<std::num::ParseIntError>`
is not implemented for `std::io::Error`
```


- 여러 오류 타입 다루기
 - 문제는 파일을 한 줄 읽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 타입과 정수를 파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 타입이 다르다는 데 있다.
 - `line_result`의 타입은 `Result<String, std::io::Error>`다.
 - `line.parse()`의 타입은 `Result<i64, std::num::ParseIntError>`다.
 - `read_numbers()` 함수의 리턴 타입은 `io::Error`만 수용한다. 따라서 `Result`는 `ParseIntError`를 `io::Error`로 변환해 대처하려고 하지만, 그런 변환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타입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 자체 오류 타입을 정의하고 다른 여러 오류 타입을 자체 오류 타입으로 바꾸는 변환을 구현한다. (`thiserror` 크레이트)
 - Rust에 내장된 기능을 이용한다. 표준 라이브러리의 모든 오류 타입은 다음과 같은 타입으로 변환될 수 있다.



```
type GenericError = Box<dyn std::error::Error + Send + Sync + 'static>;  
type GenericResult<T> = Result<T, GenericError>;
```

- '발생할 리 없는' 오류 다루기
 - 때로는 오류가 발생할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을 때가 있다.

```
if next_char.is_digit(10) {  
    let start = current_index;  
    current_index = skip_digits(&line, current_index);  
    let digits = &line[start..current_index];  
    ...  
}
```

- 예를 들어 구성 파일을 파싱하는 코드를 작성 중이고, 파일의 다음 항목이 숫자 문자열인 상황이라고 하자.
- 숫자 문자열을 실제 수로 바꿀 때는 표준 메소드인 `parse()`를 사용하면 된다.

```
let num = digits.parse::<u64>();
```

- 문제는 `str.parse::<u64>()` 메소드가 `Result`를 반환하는 데 있다. 문자열이 다 숫자로 된 건 아니라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bleen".parse::<u64>() // ParseIntError: Invalid digit
```

- '발생할 리 없는' 오류 다루기
 - 때로는 오류가 발생할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을 때가 있다.

```
if next_char.is_digit(10) {  
    let start = current_index;  
    current_index = skip_digits(&line, current_index);  
    let digits = &line[start..current_index];  
    ...  
}
```

- 하지만 digits가 숫자로만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Ok이면 성공 값을 반환하고, Err이면 패닉에 빠지는 Result 메소드 .unwrap()을 쓰는 것이다.
- 이 방법은 ?와 비슷하다. 단, 판단 착오로 인해 발생할 리 없다고 여겼던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패닉에 빠진다는 점이 다르다.

```
let num = digits.parse::<u64>().unwrap();
```

- 오류 무시하기

- 가끔은 오류를 완전히 무시하고 싶을 때도 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Rust 컴파일러가 사용하지 않는 Result 값이 있다며 경고를 내보낸다.



```
writeln!(stderr(), "error: {err}"); // Warning: Unused result
```

- 이럴 때는 `let _ = ...` 관용구를 쓰면 경고를 잠재울 수 있다.



```
let _ = writeln!(stderr(), "error: {err}"); // OK, Ignore result
```

- `main()`에서 오류 처리하기
 - 보통 `main()`은 리턴 타입이 `Result`가 아니라서 ?를 쓸 수 없다.
 - `main()`에서 오류를 처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expect()`를 쓰는 것이다.

```
fn main() {  
    calculate_tides().expect("error");  
}
```

- 또는 `main()`의 타입 시그니처를 바꿔서 `Result` 타입을 반환하게 만들면 ?를 쓸 수 있다.

```
fn main() -> Result<(), TideCalcError> {  
    let tides = calculate_tides()?;  
    print_tides(tides);  
    Ok(())  
}
```

- 사용자 정의 오류 타입 선언하기
 - 새 JSON 파서를 작성 중이고, 여기에 자체 오류 타입을 넣고 싶다고 하자.

```
#[derive(Debug, Clone)]
pub struct JsonError {
    pub message: String,
    pub line: usize,
    pub column: usize,
}
```

- 이 타입의 오류를 발생시키고 싶을 때는 다음처럼 작성하면 된다.

```
return Err(JsonError {
    message: "expected ']' at end of array".to_string(),
    line: current_line,
    column: current_column
});
```

- 사용자 정의 오류 타입 선언하기
 - 이렇게만 해도 충분하지만, 라이브러리 사용자들의 기대에 발맞춰 이 오류 타입을 표준 오류 타입처럼 동작하게 만들고 싶다면 할 일이 좀 더 남아 있다.

```
use std::fmt;

// Errors should be printable.
impl fmt::Display for JsonError {
    fn fmt(&self, f: &mut fmt::Formatter) -> Result<(), fmt::Error> {
        write!(f, "{} ({}:{})", self.message, self.line, self.column)
    }
}

// Errors should implement the std::error::Error trait,
// but the default definitions for the Error methods are fine.
impl std::error::Error for JsonError { }
```

- 사용자 정의 오류 타입 선언하기
 - 오류 처리도 외부 크레이트의 도움을 받으면 일이 훨씬 더 쉽고 간단해진다.
오류 처리용 크레이트는 종류가 꽤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thiserror`가 가장 많이 쓰인다.

```
use thiserror::Error;

#[derive(Error, Debug)]
#[error("{message:} ({line:}, {column:})")]
pub struct JsonError {
    message: String,
    line: usize,
    column: usize,
}
```


- 왜 Result일까?
 - Rust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치에서 프로그래머가 모종의 결정을 내린 뒤 그것을 코드에 기록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하면 오류가 방치되어 잘못 처리되는 일이 줄기 때문에 좋다.
 - 가장 일반적인 결정은 오류가 전파되도록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 필요한 코드는 ? 한 문자 뿐이다. 따라서 C와 Go처럼 오류 배관 작업으로 인해 코드가 어수선해지는 일이 없다. 게다가 가독성이 좋아서 코드를 조금만 봐도 오류가 전파되는 모든 곳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 오류의 가능성이 모든 함수의 리턴 타입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거나 없는 함수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없는 함수를 실패할 수 있는 함수로 바꾸는 일은 곧 리턴 타입을 바꾸는 일이므로, 컴파일러가 함수의 사용처를 모두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 Rust는 Result 값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실수로 오류를 무시하고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 없다.
 - Result는 평범한 데이터 타입이므로 성공 결과와 오류 결과를 같은 컬렉션 안에 담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부분적인 성공을 쉽게 모델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utilForever@gmail.com

<https://github.com/utilForever>

Facebook, Twitter: @utilForever